

'솔로' 정은지 " '심플' 음악적 고민 많았던 만큼 애정 커 "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주제... '어웨이' 청량송 표방 "에이핑크로서도 계속 찾아 뵙고 연기도 계속 하고 싶다"

그룹 에이핑크 정은지가 미니 4집 '심플' (Simple)로 돌아온다. 에이핑크의 메인 보컬이자 손꼽히는 여성 솔로 아티스트 정은지는 15일 미니 3집 '해화(曉花)' 이후 1년 9개월 만에, 디지털 싱글 '같이 걸어요' 로는 1년3개월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

정은지는 2011년 에이핑크로 데뷔, 출중한 가창력을 인정받으며 2016년 첫 솔로 출격했다. 그는 솔로곡 '하늘바라기'와 '나란 봄' 등 히트곡을 남기며 따뜻한 감성의 음악으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2018년에는 직접 전곡 프로듀싱한 미니 3집 '해화'를 발표하는 등 솔로 아티스트로서 음악적 성장을 거듭해왔다.

정은지는 이날 오후 6시 앨범 발표에 앞서 오후 5시 유튜브에서 컴백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시작으로, 8시10분 원더케이 페이스북 라이브와 10시 멜론, 카카오톡 채널에서 생중계되는 '라이브원 (Live ONE)'을 통해 팬들과 만나 앨범 관련 이야기를 나누고, 수록곡과 타이틀곡 '어웨이' 무대를 최초 공개했다.

이번 앨범 '심플'은 단순한 것이 가장 아름답다는 주제를 담고 있으며, 타이틀곡 '어웨이' (Away)는 울여름 청량송을 표방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정은지가 15일 오전 소속사 플레이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앨범에 관련된 이야기를 전했다.

-오랜만에 솔로로 컴백하는 소감은.
▶오랜만에 컴백이라 처음 앨범을 낼 때 만큼이나 떨리고 긴장되는 것 같다. 아무래도 기대해주는 팬 분들의 기다림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 같다.

-미니 4집 '심플'은 어떤 앨범인가.
▶이번 앨범 '심플'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과, '위로를 하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작업 하게 됐다.

-타이틀곡 '어웨이' 소개와 함께 매력을 알려달라.
▶이번 앨범 타이틀곡 '어웨이'는 '심플'이라는 주제의 앨범 수록곡 중에 가장 시원하고 청량한 곡이다. 이전의 곡들이 따뜻한 곡의 느낌이었다면, '어웨이'는 시원한 밴드 사운드 기반의 곡이다. 곡이 무더운 여름 지쳐가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한다.

-앨범 전곡을 프로듀싱했다. 작업에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내가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고민을 많이 했다. 앨범 작업을 하면 할수록 제가

하고 싶으면서도, 내 노래를 좋아해주는 팬 분도 오래 들을 수 있는 곡이 어떤 곡일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다.

-선우정아, 10CM, 소수빈과의 작업은 어땠는지.
▶좋아하는 아티스트 분들이 이번 앨범에 참여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내게 선물 같은 앨범이 됐다. 각각 활동하시는 음악 스타일도 다 다르셔서 많이 배웠다. 이전에도 작업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이번이 더 편하기도 하면서, 즐거웠다.

-재킷 이미지, 트랙 트레일러 등 앨범 티저가 좋은 반응을 얻었다. 콘셉트 변화가 느껴지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팬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작업한 보람이 있다. 이번 앨범 트레일러 티저뿐만 아니라 이번 앨범 진행 전 회사 분들, 그리고 나와 함께 유튜브를 하고 있는 크루 분들까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제작 하면서 나의 색깔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이 해주셨다.

-앨범 전곡 프로듀싱까지하며 솔로 아티스트로서 성장을 거듭해왔다.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하고 싶나.
▶내가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발매하게 된 앨범이라 이번 앨범 '심플'에 대해서 애정이 더 크다. 장르가 달라져도 제가 내는 앨범들이 계속 가져왔던 '사람에 대한 공감과 위로'는 계속해서 하고 싶다.



-앞으로 활동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앞으로 계속 앨범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에이핑크로서도 계속 찾아 뵙고, 연기도 계속 하고 싶다.

-기다린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
▶매일 라디오 DJ로 찾아 뵙고 있었지만, 솔로 가수로는 오랜만이라 떨리고 기대가 된다. 요즘 공연을 못하니 너무 오래 돼서 열린 얼굴 보고, 같은 공간에서 노래 하고 싶다. 모두 건강 관리 잘 하셔서 꼭 공연장에서 같이 노래 했으면 좋겠다.

권력형 성폭력 다룬 '밤쉘', 10만명 돌파



영화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감독 제이 로저)가 1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 (감독 제이 로저)가 10만 관객을 돌파했다.

지난 8일 개봉한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이 개봉 6일차에 누적관객수 10만 명을 돌파(7월14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하며 외화 전체 박스오피스 1위, 전체 흥행 2위의 자리를 유지했다.

이 같은 흥행 속도는 대표적인 고발 실화 '스포츠타임'이 개봉 6일차에 10만 관객을 넘어선 것과 같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영화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살아있다'에 이어 초대형 블록버스터 '반도'가 개봉을 앞둔 상황에서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의 이러한 약진은 개봉 2주차 흥행 레이스에도 가속도를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은 '권력 위의 권력' 미국 최대 방송사를 한방에 무너뜨린 폭탄선언, 그 중심에 선 여자들의

통쾌하고 짜릿한 역전극이다.

'밤쉘: 세상을 바꾼 폭탄선언'이 관객들에게 '필담 영화'로 꼽히며 거센 입소문과 함께 자발적인 관람 운동까지 펼쳐지고 있는 현상은 영화가 담고 있는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위계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해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여성들의 이야기를 그린 덕에 시의성 있는 주제로 관객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관람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고 폭스뉴스 회장인 로저 에일스(존 리스)를 성희롱으로 고소한 최초의 내부고발자 그레첸 칼슨(니콜 키드먼)을 비롯,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자신이 앵커로서 쌓아 온 모든 것을 걸어야만 하는 상황에 많은 내적 갈등에 빠지는 메건 켈리(샤를리즈 테론), 그리고 세 주인공 중 유일하게 허구적 인물로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직접적인 사례로 보여주고 있는 신입 케일라(마고 로비)까지, 관객들은 세 주인공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이 같은 권력형 성폭력 문제를 꺼낸 영화에 공감하고 있다.

최유화, 가와세 나오미 감독 '빛나는' 해설 참여



장건재 감독과 배우 최유화가 각각 제70회 칸영화제 에큐메니칼상 수상작, 가와세 나오미 감독의 '빛나는'의 배리어프리 버전 연출자, 화면해설자로 참여했다.

장건재 감독과 최유화는 2020 배리어프리 영화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장건재 감독은 '별세' 이승연과 함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배리어프리버전 제작에 참여한 바 있고, 최유화는 '위 캔 두 댓!' 배리어프리버전 목소리 출연 및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 개막식 사회 등 오랜 시간 배리어프리영화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장건재 감독은 " '빛나는'은 배리어프리 영화 화면해설 작가가 주인공입니다. 이 영화는 무엇보다 배리어프리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의 배리어프리버전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라며 "올해 배리어프리영화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최유화 배우님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기대하고 감상하시셔도 좋습니다"라고 연출 소감을 밝혔다.

최유화는 "좋은 영화를 좋아하는 감독님과 함께 화면해설을 하게 되어서 뜻 깊었습니다. 또 좋은 결과물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과정 속에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빛나는'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처음 화면해설을 마친 소감을 밝혔다.

'빛나는' 배리어프리버전은 2017년부터 배리어프리영화 제작을 후원하고 있는 효성의 여섯번째 후원작품이다. '빛나는' 배리어프리버전은 공동제작 및 야외촬영, 공공영상 등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김형목, 신생 디플랜 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소속사 "매 순간 최선을로 임하는 진실된 배우"



배우 김형목이 디플랜 엔터테인먼트와

소속사 "매 순간 최선을로 임하는 진실된 배우"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디플랜 엔터테인먼트는 15일 "최근 SBS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 출연해 '플랜맨'이자 무병장수가 꿈인 건강관리 '갑'의 독특한 일상을 공개하며 화제가 되었던 배우 김형목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형목은 1999년 뮤지컬 '켓츠'로 데뷔, 2009년 SBS 드라마 '자명고'로 얼굴을 알린 뒤 2017년 '굿속말'을 통해 본격적으로 안방극장에서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SBS '조작' SBS '리턴 JTBC '미스티' JTBC '스캐치' OCN '플레이어' tvN '왕이 된 남자' SBS '열혈사제' tvN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와 영화 '국가부도의 날' '증인' '타짜: 원 아이드 잭' '나쁜 녀석들: 더 무비' '천문: 하늘에 묻는다' 등에 출연해 다양한 캐릭터들을 존재감 있게

소화해 내 베테랑 연기자로 자리 잡았다.

특히 김형목은 지난해에 종영한 tvN 드라마 '형일전자 미쓰리'에서 '형일전자'를 쥐락펴락하는 대기업 TM전자의 오래된 관행을 바로잡으려다 내부 고발자로 사내에서 왕따를 당해 냉정하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TM전자 상무 문형석으로 분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가 연기한 문형석은 겉보기에는 냉혈한이나 이면에는 아픈 친동생을 끔찍이 아끼는 캐릭터라 많은 공감을 얻었다.

소속사 디플랜 엔터테인먼트는 "매 순간 최선을로 임하는 진실된 배우 김형목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작품의 몰입도를 위해 자신이 맡은 이물의 심리, 감정을 오랜 시간 연구하고 고민하며 연기에 임하는 만큼 열정 넘치는 배우 김형목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다양한 작품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뉴스 1

블랙핑크, 美 빌보드 '핫100' 2주 연속 차트인

블랙핑크가 컴백 3주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도 식지 않는 최정상급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 (How You Like That)은 15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인 멜론 24Hits 차트의 가장 높은 자리를 지켰다. 지난달 26일 음원이 발매된지 무려 20일째, 경쟁한 음원 강자들의 신곡 발표 속 박스 실시간, 네이버뮤직 일간 차트 1위 역시 탈환했다.

글로벌 인기 또한 여전히 막강하다. '하우 유 라이크 댓'은 14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빌보드 핫100서 91위를 기록해 2주 연속 메인 싱글 차트 진입에 성공했다. 아울러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은 발표 직후부터 글로벌 음악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아이튠즈 전 세계 64개국 1위는 물론, 일본 라인뮤직 1위, 중국 최대 음원사이트 QQ 차트 3관왕에 올랐다.

미국 빌보드와 세계 양대 팝 차트로 꼽히는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에서는 20위로 K팝 걸그룹 단일곡 최고 순위를 자체 경신했고,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인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50차트에서는 2위를 기록해 K팝 역사를 다시 썼다.

음원 차트뿐 아닌 음악 방송까지 휩쓸었다. 블랙핑크는 SBS '인기가요'를 시작으로 MBC M '쇼챔피언', Mnet '엠카운트다운', KBS 2TV '뮤직뱅크', MBC '쇼!음악중심'에서 컴백 후 총 6개의 트로피를 들었다.